

## 간호전문학교 교육과정 분석

### An Analytical Study on Curricula of Junior Colleges of Nursing in Korea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이 은 옥

#### 연구 취지 및 목적

학교교육은 어느 계층의 교육이든, 어떤 학문의 교육이든간에 정해진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된다. Tyler(1950)는 학교가 계획하고 지도하는 모든 학습을 교육과정이라고 했고 이는 다시 말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교육과정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훌륭한 졸업생이 배출되는 것은 아니고 그 교육과정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인적자원과 환경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홍(1970)의 연구에서 인용된 내용으로 보아 미국에서 간호업무를 그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숙련정도에 따라 전문업, 준전문업 혹은 기술업, 및 보조업의 3종류로 분류하고 있고 간호업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업 수준의 간호원을 가장 많이 배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1965년에 미국간호협회에서 발표한 position paper(1965)에서는 전문직 수준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원이 되려면 최저 대학간호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술직 수준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간호원이 되려면 초급대학과정(2년제)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근황과 우리의 입장을 비교해볼 때 간호업무 자체에서는 미국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세종류로 구분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체제도 미국과 흡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문교부에서는 이러한 기본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미 3년제 간호전문학교를 실업교육과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전문단체나 간호계 인사들

이 각 종류의 학교의 교육목표를 어떻게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어떤 졸업생을 배출해야 하는냐는 점에서 통일된 의견을 갖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Nutting(1927)의 간호교육의 절대적인 요소라는 제목하에 수록한 내용중 그 당시의 미국의 간호교육상의 문제로서 간호원의 기능과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목표와 교육의 범위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한국과 미국의 간호교육을 비교해 볼 때 교육제도나 체제상에서는 흡사한 변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미국이 60년 전에 갖고있던 문제점을 우리는 아직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거나 목표가 잘못된 상황에서 계속 졸업생을 내고 있다면 이는 전 간호계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73년 문교부에서는 실업계 간호전문학교의 교육과정안을 설정하고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도 마련하였다. 변(1974)은 이와 같은 문교부 규정에 대해 교과편제, 단위배당기준, 졸업소요단위, 교과목의 분류 및 교육과정운영지침이 너무 자세하여 고등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등교육의 교과과정 편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느 범위 내에서의 지침은 과도기에 처해 있는 간호교육기관의 교수진이 전직 및 양적으로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필요한 방법이라고 보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학생에게 어느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충분히 교육적 수준이 높아지기 전에는 교과내용, 교수방법 뿐만 아니라 각 교과목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까지도 일률적으로 제공하면서 각 학교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본 논문은 197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로 이루어졌음.

<1977年 5月 16日 接受>

중 일부학교는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자기학교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차츰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됨과 동시에 학생의 학과목 선택의 폭도 넓어져야 한다고 본다.

문교부가 제시한 안에 근거를 두고 현재까지 3~4년간 어느정도 일정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본 각 전문학교 교수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기학교의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을 교과과정에 부각시킬 단계가 오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 자체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서 앞으로의 교과과정 연구와 실현에 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 조사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전국 36개의 간호전문학교중 면담이 가능했던 31개교의 교수를 대상으로 하여 1976년 12월부터 1977년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였고 해당학교가 갖고 있는 학교요람이나 교과과정표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교과과정 자체와 교과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조사성적 및 고안

조사성적은 면담이 가능했던 31개교의 실행교과과정을 분석하는 부분과 교수현황을 분석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 1. 실행교과과정의 분석

##### ① 교육이념 및 목표의 분석

한국의 간호사를 더듬어 보면 이조말기부터 간호교육기관은 존재하였으나 특징적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고,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시작한 간호교육은 오랫동안 젖어온 유교사상의 지배에 의해 사회의 인정을 받기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교육년한과 간호교육기간도 짧게 설정되어 간호원을 높은 수준으로 교육시키는 데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 문교부는 단기고등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간호고등기술학교와 간호학교 제도에서부터 간호전문학교 제도로 유인하는 정책을 써 왔으며 그 결과 현재 3년제 간호교육기관 38개중 2개

의 학교만을 제외하고 36개교가 과학교육국 내의 실업교육과에서 관장하는 전문학교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일원화는 간호교육제도의상의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는 자연발생적으로 각 학교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서서히 진행된 것이 아니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 급속히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교육목표를 설정한 학교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이 된 31개교 중에서 학교요람이 없거나 있어도 그 중에 교육목표가 명기되지 않은 학교는 14학교였고 기재된 17개교 중 6개교는 교육법 제 128조 6항에 있는 「전문학교는 사회 각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육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대한민국의 전문학교 교육목표를 약간 수정하여 기재해 놓았다. 그리고 나머지 11개교가 약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기대되는 간호원상과 인간상이며 인류복지를 위한 사회봉사와 기술의 중요성과 반공사상 등이었다. 그리고 특이하게 1개교만이 인간, 환경, 봉사, 형제다운 사랑, 건강 및 간호에 대한 이념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었다.

교육이념이나 목표를 성문화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중견직업인을 기른다고 기재하였다. 교육목표란 학생이 일정한 과정을 마치고 난 직후에 어떠한 행동을 보여 줄 것인가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졸업 직후에 어떻게 중견 직업인이 될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학교의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거나 명백한 목표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결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이 높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우선 오랫동안 전승해 내려오는 유교사상 때문에 실학사상이 우리민족의 뇌리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실업계 직업의 가치를 과소평가해 왔다. 뿐만 아니라 어느 사람도 실업교육에 대한 개념인식이 일조일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쯤에서야 실업교육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직업심리에 관하여 Super(1957)는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3학년 까지 단계적으로 직업기술교육의 존엄성을 일깨워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여 인간은 학동전

기에서부터 직업세계에 눈뜨기 시작하여 앎의 단계, 적용기, 탐색기 및 준비기를 단계적으로 거쳐야 비로서 직업에 대해 확고한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상형의 현대적 업인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사회적인, 전통적인 관념상의 이해부족으로 교수나 학생이 모두 간호직업교육에 대해 불투명한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으면 앞으로의 간호계 전반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이(1971), 김(1975), 최(1971)도 간호교육의 성격상 전문교육과 기술교육이 완전히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이(1971)는 전문교육에서는 인간성, 기초과학 및 사회과학에 큰 비중을 두고 기술교육은 실무에 필요한 기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같이 전문교육과 기술교육은 서로 강조점이 다르고 생산품이 달라 마치 사기그릇과 질그릇을 연상하게 한다. 사기그릇과 질그릇은 그 사용목적이 달라 사기그릇에 찌개를 끓일 수 없으며 질그릇에 밥을 담아먹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전문학교 졸업생과 대학졸업생은 이러한 용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② 일반교양과목의 분석

일반교양과목 중 교양필수과목은 일률적으로 22단위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교양선택과목은 4-24단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학교마다 다양하고 폭넓게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양필수과목은 국가적인, 인격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는 과목으로서 학년별 분포에 있어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학년에만 편중되는 집중이수형이 아니고 저학년에는 많으나 고학년에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분산이수형에 속하고 있으므로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교양선택과목은 최소이수단위인 4단위만을 선택한 학교는 없었으며 최저 8단위를 택한 학교가 있었고 평균 이수단위는 17.72였고 대부분 강의형태의 과목이지만 음악, 자연과학, 영어회화 등이 실습을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과목중 영어는 모든 학교가 다 선택했으며 10단위까지도 이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어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그 다음 순위가 철학개론, 사회학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훨씬 많이 선택했으며 독일어를 선택한 학교도 7개교 있었고 심지어는 간호독어까지 선택하게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졸업후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1-3개교에서 선택한 과목으로서 자연과학, 심리학, 음악, 경제학, 성경, 여성과 교양, 종교, 문화사, 논문작성, 생물학 등이 있다. 심리학을 선택한 학교가 적은 것이 의아한 결과였고 학교의 특성에 따라 성경, 여성과 교양등 특색있는 과목을 설정한 것은 획일성을 배제한 결과로서 각 학교의 이념을 구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교양선택과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지않고 학교가 학생을 대신하여 일정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다. 학생마다의 흥미와 재능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유사과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점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중요한 것은 학교가 대개 단일학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상의 문제와 적절한 교수확보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단일학과만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문제해결이 어렵겠으나 대학부속 전문학교나 여러학과가 공존하는 학교에서는 대학교수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선택이 여지가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③ 전문과목의 분석

전문선택과목의 이수단위는 44-90단위가 허용되어 있는데 표1에서와 같이 평균이수단위는 42.17로서 최저 이수단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2에서는 사립학교가 40.47단위, 국공립학교가 44.20단위를 이수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해부학, 생리학, 미생물학, 약리학, 영양 및 식이 등의 보조과학은 간호학의 선수과목으로서 전공선택이 아닌 보조과학 또는 기초

Table 1. Average unit of Theory and Practice required each Semester of each Year (31 Schools)

Semester Category of Subject	1st year				2nd year				3rd year				Total
	1st Sem.		2nd Sem.		1st Sem.		2nd Sem.		1st Sem.		2nd Sem.		
	Theo.	Prac.	Theo.	Prac.	Theo.	Prac.	Theo.	Prac.	Theo.	Prac.	Theo.	Prac.	
Compuls in Gen Educ	8.52	0.27	5.95	0.27	3.45	0.21	1.81	0.08	0.68	—	0.61	0.10	22.00
Electives in Gen Educ	6.23	—	4.81	0.03	2.26	0.07	1.87	0.07	1.11	—	1.27	—	17.72
Compuls in Prof Educ	6.79	3.39	6.68	5.60	14.55	11.47	12.84	17.34	12.81	19.11	15.16	12.16	137.90
Electives in Prof Educ	11.29	2.45	11.07	3.58	4.45	1.13	2.71	0.97	1.32	0.68	2.13	0.39	42.17

**Table 2. Average Unit of Electives in Professional Subjects**

	1st Year		2nd Year		3rd Year		Total
	1st Sem.	2nd Sem.	1st Sem.	2nd Sem.	1st Sem.	2nd Sem.	
Private School 17	12.59	14.59	5.47	2.94	2.12	2.76	40.47
Government School 14	15.14	14.71	5.71	4.57	1.86	2.21	44.20

학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선택과목으로서 임상심리, 의사소통, 보건통계, 보건교육 등의 과목은 선택하지 않은 학교가 많았으며 기타과목으로서 약제, 간호특론 및 원시강독을 선택한 학교도 있었다.

전문선택의 경우에도 학생 자신이 선택할 기회가 없고 학교가 선택하고 있으며 전문선택과목 중에는 기초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학년에서의 이수율이 높게 나타나 있으나 사실상의 전문선택과목은 앞으로 졸업 후에 더 깊게 관여하고 싶은, 학생이 흥미가 있는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고학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조과목 중 실험실시율을 살펴보면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을 전혀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가 5개교나 되며 한과목만 실험을 하는 학교가 11개교로서 그 과목은 해부생리, 미생물 혹은 영양식이였다. 그리고 3과목이나 그 이상 실험을 하는 학교도 12개교였으며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가 실험실시율이 높았으며 그 배경을 살펴보면 대학부속전문학교나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재단이 확고한 학교에서 실험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실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학교는 없겠으나 실험실의 설비부족, 예산부족 또는 실험을 진행시킬 교수부족이 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외국차관에 의한 실험기재 구입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선택과목중 교직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공립에서 13, 사립에서 11개교로서 총 24개교이며 교직과목을 이수시키지 않는 학교는 국공립 2, 사립 4개교로서 총 6개교에 불과하다. 이

**Table 3. Number of Schools Offering Laboratories for Subjects of Supportive Science (30 Schools)**

	Gor.	Priv.	Total
No Lab	3	2	5
One Subject	6	5	11
2 Subjects	2	—	2
3 Subjects	4	8	12
Total	15	15	30

러한 결정은 학교가 어떤 졸업생을 배출할 것이냐 즉 어떤 교육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만능의 간호원을 배출하려고 애쓰는데 비해 교직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교육목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상과 같은 용기 있는 결정을 간호학 전공과목에서도 내릴 수 있다면 특수임상간호나 지역사회간호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앞으로 나아간 분야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필수과목은 요구되는 이수단위가 114-140인데 표1에서 보면 평균 137.90단위를 이수하고 있고 국공립에서는 137.51, 사립에서는 138.20 단위를 하고 있는 것이 표 5에서 나타났다.

일반임상간호에 해당하는 성인간호, 모성간호, 아동간호의 실습현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학교가 평균 2.7개의 병원을 실습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근처의 의원에까지 실습을 내 보내는 학교가 6개교나 되며 방학동안이나 학기 중간에도 다른 대도시로 실습을 보내는 현실이다. 그리고 정신간호 같은 특수간호분야의 실습은 전혀 하지 못하고 졸업시키는 학교도 있다는 것은 또하나의 문제라고 본다. 이와같이 실습현장의 부족으로 고심하는 학교가 많으나 그 해결책으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영아원, 어린이집, 유치원, 고아원, 양노원, 노인학교, 일반가정을 실습장소로 이용하려는 학교는 극히 적었으며 이는 교수가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사전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학생과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에 비해 교수수의 부족과 기타 준비문제로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수의 학생이 실습나갈 수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 등

**Table 4. Number of Schools offering Educational Subjects**

	Offering	Not Offering	Total
Govern. School	13	2	15
Private School	11	4	15
Total	24	6	30

**Table 5. Average Unit of Compulsory Subjects in Professional Subjects**

	1st Year		2nd Year		3rd Year		Total
	1st S.	2nd S.	1st S.	2nd S.	1st S.	2nd S.	
Private 17	10.5	13.38	26.79	31.26	31.15	25.12	138.20
Govern. 14	9.79	10.93	25.07	28.86	32.86	30.00	137.51

지에서 임상교수가 직접 실습지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를 교수 수의 부족으로 들고 있지만 교수 자신의 경험부족, 자신감 부족, 또는 성의부족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임상실습은 학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에 실습을 의뢰하는 경우이다. 이 때 학교에 따라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병원의 간호과장과 합의하에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실한 실습을 시켜도록 유도하며 일련히 실습교수를 배치하여 학생과 함께 상주시켜서 학생 실습지도에 소홀함이 없이 함으로서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다 하고 궁극적으로 간호의 진을 향상시키는 우리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학업시간인 낮시간과 학기 중에 실시하는 실습 이외에 초번과 밤번 그리고 방학 중에 실습시키는 학교에 있어서 9개교는 야간실습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학생에게 실습시키고 있으며 그외의 학교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개 국공립학교중 6개교, 15개 사립학교 중 11개교가 정규시간 이외의 실습에 대해서도 학교가 개입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학교는 실습계획과 시행 전체를 해당병원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3년동안에 며칠이나 야간실습을 시행하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파악이 가능한 17개 학교 중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 보다 초번실습기간이 길었고 밤번실습은 그 반대였다. 그리고 방학기간 중의 실습은 국공립학교 15개교와 사립학교 13개교가 실시하고 있고 그 기간은 국공립학교가 더 길어 74.6일이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기간 동안에 전혀 실습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간호전문학교의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20:80의 비율은 타당할가라는 문(1975)의 의문 제기와 현재의 교과구분상의 맹점을 비교하여 보면 간호전문학교가 실업계 직업인을 키우려는 교육기관이라면 그 교과목을 일반교양, 기초과목, 전문과목 및 실습과정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최(1974)는 이 내까지 과정 중 실습이 전체 시간의 1/2 이상을 차지하며 전문과목을 포함하면 약 80%가 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타 기술분야에서는 일반교양과목과 기초과목을 포함하여 20%가

된다는 말이다. 또한 홍(1970)의 발표에서 미국 초급대학의 경우 일반교양과목과 기초과목의 학점이 전공과목의 학점의 50%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것은 학점제이기 때문에 전공과목의 실습시간을 학점화하면 상당히 학점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간호전문학교의 경우 원개 단위제에서 교양과목 20%를 대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런데 문교부가 제시한 교과과정 기본원칙에서 과목명칭을 성인간호학 및 실습 대신에 성인간호학이라고 한 것은 성인간호학상의 문제를 이해, 분석 및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습이라는 교육방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는데 간혹 이를 오인하고 종합실습이 아닌 전문필수과목에서는 정의만을 다루는 학교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에게 책임인으로서의 목적의식을 상실하게 하고 추상화된 개념경험인뿐이기 때문에 보람과 만족감을 상실하게 하며 일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직업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

전문학교에서 실습을 강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실습점수를 증시하려고 단위제를 실시하여 주당 1시간의 실습을 1단위로 간주하는 것은 한가지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전공과목당 필요로 하는 실습시간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당 3시간 이상은 1단위로 간주하여 실시하는 현실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실습시간의 교육을 위해 준비된 것이면 적은 시간을 두어하여 넣을 것을 배울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중요도 시가 사립, 드립병원은 원과수도 많지 않고 교수의 직접적인 실습지도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적에도 적고 교육적인 기회와 주어진지도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습에 필요한 시간은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학교 교육 이후에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에 이미 이수한 성적을 학점으로 착신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성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단위제를 학점제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 2. 교수현황의 분석

문교부 규정에 의하면 2학급(10명 단위)까지는 5명의 전임이상의 교직원을 둘 수 있고 2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배 학급당 2명 이상의 교직원을 발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표7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공립학교의 정원은 213명, 사립학교는 177명인데 김(1975)의 보고와 흡사하여 국공립과 사립에서 정원율은 정원의 59.15%, 58.76%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정원만 다 채용할 수 있어도 실습지도의 문제 주 권력원 기술교육이

Table 6. Number of Days of Practice during Evening, Night, and Vacation

	Govern. (15 sch.)	Private (15 sch.)
Evening	62day (6Sch.)	86.18day(11Sch.)
Night	22day (6Sch.)	13.08day(11Sch.)
Vacation	74.6day(15Sch.)	62.92day(13Sch.)

**Table 7. Expected Number and Present Number of Faculty Members**

	Expected	Present	Percent
Goven (15 Schools)	213	126	59.15
Private(15 Schools)	177	104	58.76

**Table 8. Status of Professors**

		Prof.	Assoc. Prof.	Assis. Prof.	Inst	Total	Assist	Temp. Assist	Total	Grand Total
Govern. (15)	Nsg.	0	2	16	62	80 (63.49)	41	9	50	130
	Non-Nsg.	1	6	16	23	46 (36.51)	2	—	2	48
Private (15)	Nsg.	2	3	13	50	68 (65.38)	64	6	70	138
	Non-Nsg.	7	1	11	17	36 (34.62)	2	—	2	38

**Table 9. Number of Non-Nursing Professors and Major Field**

	Gen. Educ.	Educ.	Supp. Sci.	Nur-sing	No. Resp.	Total
Govern(15)	19	20	7	—	—	46
Private(15)	8	10	5	9	4	36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의 직위별 분포를 표8에서 보면 간호계 교수는 하위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타분야교수는 상위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교수의 경험부족, 교육적 준비부족으로 현재의 교육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간호계 교수는 부족하고 조교나 임시조교 정도의 사람은 많아 전임이상의 교수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도 전문필수과목의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UNESCO(1974)에서 실업계 학교교직원들의 양성문제에 관련하여 제의한 권고요점 중 기술 및 전문학과 담당교사는 담당분야의 실무분야, 기술영역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의 실기경력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당과목별 비간호계 교수 현황을 보면 사람의 경우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의사교수가 9명이나 있는 것이 특색이며 이들은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가로서 간호학교의 전임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이며 그 외에 실험이 따르지 않는 교양과목과 교직과목을 위해 전임교수가 채용된 경우도 많아 중점을 두어야 할 기술교육의 실습지도를 위한 인력이부

족한 상태에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76년 12월부터 1977년 3월까지 전국에 있는 36개의 간호전문학교를 대상으로 면담을 요청했으며 그 요청에 응한 31개교의 실행교과과정과 교수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관련된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학교의 교육이념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학교가 31개교중 20개교나 되었고 나머지 11개교중 1개교만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었다.

교육법에 기재된 전문학교 교육목표에서 중견직업인을 기른다는 목표 보다는 초보적인 직업인을 기른다는 표현이 더 타당할 것이다.

앞으로 직업교육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국민 전체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간호전문학교는 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위한 기관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상 차질이 생길 위험성과 간호계 전체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반교양필수과목은 분산이수형을 따르고 있었으며 어학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택과목 운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학교가 대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부속전문학교나 여러 학과가 공존하는 학교에서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보조과학의 실험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5개교, 한과목만 실시하는 학교는 11개교로서 이 문제도 학교의 예산과 준비된 교수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대학부속전문학교나 예산과 열의가 있는 학교에서는 충실히 시행되고 있었다.

양호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교직과목을 이수시키는 학교가 24개교였으며 다른 6개교만이 이를 이수시키지 않고 있다.

양호교사는 특수교사로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양호교사가 되기위해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전문필수과목의 운영은 각양각색이어서 실습은 종합실습에서만 다루는 학교도 있으며 또는 실습강화를 위해 주당 3시간 이상의 실습을 1단위로 간주하는 학교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야간이나 방학을 이용한 실습을 많이 시키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특히 실습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 실제로 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와 대학편입시의 행정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단위제 보다 학점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수는 정원 390명(30개교)에 비해 현원은 59%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간호학 교수는 경험이 적어 하위직에 존재하고 타분야교수가 현원내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점차로 실습지도교수의 질적 및 양적인 면에서 보완해야함과 동시에 우선은 실습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를 시간강사로 발령하여 책임감있게 학생을 지도하도록 유인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교수의 질적인 준비와 양적인 준비가 되어있고 자체의 실험실과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거나 소속대학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학교에서는 단계적으로 2년제의 실험학교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ABSTRACT

### An Analytical Study on Curricula of Junior Colleges of Nursing in Korea

Eun-Ok Le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icula and the present status of teaching faculties of 31 junior colleges of nursing among total 36 school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of teaching faculties and review of school bulletins they provided, for the period of 4 months from December, 1976 to March, 1977.

Final conclusions and suggest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More than half of the junior nursing colleges have no written school philosophies or objectives, or very vague ones, if they have. Only one school mentions its objectives very clearly on human being, service, health, nursing etc.

Educational objectives of junior college of Korea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students toward middle class of technical people should be changed to the objectives of beginning technical ones.

Values of technical occupation should be recognized

by the society as soon as possible and should be educated from the early period of life. Nursing leaders including nursing educators should also accept that diploma program of Korea is technical in character and should systematize the whole nursing field in order to prevent further confusion and chaos.

Elective courses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are selected by schools themselves rather than by students. Therefore students have to take all of the courses offered by their schools. This type of problem will be, to some extent, solved in the junior colleges working in conjunction with universities by the utilization of the professors in the university.

Laboratory works of supportive sciences are not so active in many schools. The main reasons are lack of budget, prepared faculties, and facilities. Educational courses required for the preparation of school nurse should be curtailed because the main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chool nurse are not class-room lectures but health maintenance and health education of the students. Twenty four schools offer the educational courses and remained 6 schools do not.

The number of hours required for compulsory subjects of nursing are very different depending upon schools. Many schools require the students to have practice during the evening, night and even in the vacation. Since there are no instructors during these periods, they should consider this problem seriously.

The junior college adopts the unit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redit system. Since the transformation of academic record taken in the junior college to the university credits in case of transference is very complicated,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junior college should rather utilize the credit system.

The number of faculty members at the present time is only 59% of the planned number. The main reasons of this shortage are lack of school budget, qualified teachers and strong intention to recruit the qualified people. This shortage produces lack of clinical instruction which results in low quality of care. We should plan to overcom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culties on the long-term basis and should in the mean time let the head nurses and supervisors be participated in the teaching as part-time instructors

in the clinical areas.

Any school which has been prepared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faculties and in which physical facilities of laboratory and library are available may start experimental study of 2 year junior college program.

### 참 고 문 헌

- 김광주 : 간호교육 및 업무의 실제와 문제점, 대한간호 14(5) : 51—58, Oct., 1975.
- 김종민 : 간호교육 실태조사, 대한간호, 14(6) : 53—58 Dec., 1975.
- 변창자 : 교육과정의 실제—간호전문학교를 중심으로— 대한간호, 13(6) : 22—28, Dec., 1974.
- 변창자 : 전국간호전문학교 교무과장 연수회 보고서— 1975년도 실과교사(간호개)개교육—1975년 7월, pp. 95—98.
- 이귀향 : 최대환의 건강을 위하여 인간을 돕는것, 대한간호, 10(2) : 34—36, April, 1971.
- 최상순 : 간호학교와 간호전문학교의 문제점, 대한간호 10(2) : 17—19, April, 1971.

최지운 : 산업기술교육의 제 문제, 한국교육학회, 노력개발사, 1974.

홍여신 : *A Survey Study of Literature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Associate Degree Nursing Programs*, 중앙의학, 18 : 193—203, March, 1970.

American Nurses' Association. "Educational Preparation for Nurse Practitioners and Assistants to Nurses A Position Paper." New York, The Association, 1965.

Nutting, M. Adelaide: *A Curriculum for Schools of Nursing*, National League of Nursing Education, 1927 cited from Editorial, N.O., 22 : 305, May, 1974.

Super, D.E.: *The Psychology of Career*, Harper & Brothers, 산업기술교육의 제문제에 인용되었음, 한국교육학회, 노력개발사, 1974.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al and Training, *recommendation by UNESCO and ILO, 1964*,

Tyler, Ralph W.: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50.